도심사찰, 도농상생 나섰다

조계사 등 서울 지역 사찰,
농특산물 판매 등 업무협약

조계사 · 함평군 '상생효과' 톡톡
의성 · 해남군도 직거래 동참
봉은사도 평창군과 2월 협약 맺어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 · 사진 오른쪽)는 3월 22일 의성군과 '도 · 농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서울 도심사찰들이 각 지자체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3월 22일 경내 관음전에서 의성군과 '도 · 농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의성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사됐으며, 의성군의 우수 농산물 공급 및 조계사 내 직거래장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성군은 조계사에서 사용하는 공양미뿐만 아니라 인근 복지센터에도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게 된다. 또 하루 5000여 명의 신도들이 찾는 음력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정기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의성의 우수한 농 ·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6년 8월 의성 고운사에서 열린 '조계사 하안거 생명살림기도 행사' 가 계기였다. 당시 열린 직거래장터에서 의성 농 · 특산물이 조계사 신도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의성군에서 협약에 관심을 갖게 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삶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2011년부터 함평군과 국화축제를 매개로 한 도농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함평에서 열리는 국화축제에 앞서 10월 경 조계사에서 국화 전시와 함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다. 연간 4차례 장터 등을 통해 4억 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향대전 홍보도 배가해 지자체 축제로는 이례적으로 2015년부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조계사는 2013년부터 해남군과도 함께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도 2월 10일 경내 법왕루에서 평창군과 관광인프라 공유 및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창군은 2016년 4월 월정사 방생법회 당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초하루 봉은사 일주문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 2016년 11월에는 평창군 절임배추를 봉은사 김장에 전량 제공하기도 했다.

천태종도 지난해부터 서울 관문사를 비롯한 도심 사찰에서 본산 구인사가 위치한 단양군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단양군이 지난해 서울 관문사 등 천태종 사찰 5곳 등에서 판매한 농 · 특산물매출액은 7억2000여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 도안사(회주 혜자)가 진행하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이런 도농상생의 효시로 평가 받고 있다.

직접 지역을 찾아가 도농상생을 위한 농 · 특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다. 매회 5000여 명씩 지역 순례에 동참하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2006년부터 11년 간 진행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매출액은 3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사 관계자는 "법회에 참여하는 보살들이 주로 60대 여성들인 관계로 농 · 특산물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어르신들의 법회 참여도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농특산물 직거래와 함께 다양한 도농상생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다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세상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과 장애인, 다문화, 노숙인 등
소외이웃들의 아픔을 보듬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더나눔'에 동참해주세요~!

후원참여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하나은행 162-910021-37504
우리은행 1005 - 003 - 175922

* 모연된 기금은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 후원에 참여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61년
2017.04.23[일] 13시 30분
장충체육관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BBS 불교방송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협의회
문 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723-5101
후 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차별없는 세상, 다 함께 만들어 가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월 23일 범사회적 나눔행사 개최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범사회적 나눔행사 '더 나눔' 을 전개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더 나눔' 은 사회복지재단이 17년간 진행해 온 '난치병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 의 확대 행사로 난치병어린이 외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여한다. 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후원자 등 총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희망을 전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시간을 함께한다.

홍보대사 김성녀와 양하영, 가수 장윤정과 박완규 등도 음성공양을 통해 희망과 감동이 넘치는 나눔 한마당 만들기에 함께 한다. 또 행사에서는 난치병 치료비 지원을 받아 건강이 호전된 김성재 어린이가 참석해 감사편지를 낭독한다. 또 국내 및 라오스에서 난치병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영상소개, 치료비 모연금 전달식 등도 진행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나눔과 문화예술이 결합한 행사를 통해 메말라가는 인간애를 되살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더 나눔' 행사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기관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매일유업, 이마트 등이 후원한다. (02)723-5101

노덕현 기자

위드아시아,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광명 선사

캄보디아 쁘레이끄랑 마을에 전기 및 교육용 TV 지원

전기가 없어 밤이면 칠흑보다 어둡던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 자비의 빛 한줄기가 내리게 됐다. 불교계 NGO 위드아시아가 전기를 보급한 것이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3월 22일 캄보디아 쁘레이벵주 쁘레이끄랑 마을에 전기와 교육용 TV를 지원했다.〈사진〉

쁘레이끄랑 마을은 전기가 없어 밤이면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했다. 캄보디아 국가 전체 전기 보급률은 68%에 달하지만 수도권이나 도심에 집중돼 있어 시골지역은 전기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직접 전봇대를 구입해야해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일은 굉장이 어려웠다.

이번 위드아시아의 전기 지원으로 200여 주민들이 전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마을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캄보디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전기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터부 쁘레이뽀은면 면장은 "수백 년 동안 전기가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면서 "TV를 통해 전 세계 뉴스를 보며 마을 아이들이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위드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빈곤 소외계층 및 국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불교계 국제구호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12년 간 북한 어린이 인도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인도 · 태국 · 라오스 · 미얀마 · 캄보디아 등에 학교 및 공부방 건립과 더불어 우물, 지붕 개보수 등 진행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태허 스님 48주기 추모재, 4월 12일 열린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서울 현충원 현충관서 개최

스님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던 태허 스님〈사진〉 48주기 추모재가 국립서울현충원서 4월 12일 봉행된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대표 민성진)는 태허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4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제48주기 추모재' 를 개최한다.

이번 추모재에서는 유족, 관련단체장,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며 개식, 국민의례, 태허 스님 약사보고, 내빈추모사, 합창단 추모곡, 헌화 및 분향, 조총발사 및 묵념, 그리고 운암 김성숙선생 묘소 참배 순서로 진행된다.

추모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경근 서울보훈지청장, 함세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장, 이재명 성남시장, 前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독립운동가단체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또 부천 석왕사합창단, 역사어린이합창단, 국방부 군악대, 국방부 의장대가 참여해 추모공연을 펼친다.

한편,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은 1898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 19세에 양평 용문사에서 출가했다. 스님으로 있던 1919년 조선독립군 임시사무소 명의의 격문을 뿌려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중국으로 건너간 태허 스님은 조선의용대, 의열단 투쟁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다. 광복 후에는 통일을 위해 헌신했으며 신민당 창당 주축으로 지도위원을 맡아 활동하다 1969년 4월 12일 서거했다. 정부는 태허 스님의 공훈을 기려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국가보훈처는 2008년 4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로 선정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동련, 4월 16일부터 전국 연꽃문화제 개최

어린이 불자들의 그림과 글 경연인 전국연꽃문화제가 4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에서 펼쳐진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 청계사 주지)은 4월 16일 의왕 청계사에서 서울 · 경기 연꽃문화제를 시작으로 창원 구룡사 등에서 연꽃문화제를 진행한다. 연꽃문화제는 4월 22일 강릉 향기공원, 4월 29일 부산시민공원, 4월 30일 광주여자대학, 5월 3일 울산 정토사, 5월 13일 밀양 용궁사 등지에서 펼쳐진다.

참가대상은 5세부터 16세까지로 글짓기와 그리기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글짓기 분야는 운문과 산문 분야로 나뉘며 초등부 3~6학년이 참가한다. 그리기 분야는 크레파스와 유치부, 수채화는 초등부 및 중등부 경연으로 진행된다.

올해 주제는 '나의 소원' '생일' '선물' 으로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밖에 특별상으로 조계종 포교원장상이 수여된다.

개인 및 단체신청서는 동련 홈페이지(www.dongryun.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각 지역별로 진행되며 6월 중 본상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